

월요광장

창의적 교육의 실천을 기대하며...



이승권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반세기에 걸친 대한민국의 발전은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주변국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왜곡시켰고, 이어진 내전은 급수강산을 황폐화시켰다. 경제발전 프레임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당하였지만 민주화에도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의 성상을 견인한 바탕에는 우리의 뜨거운 교육열이 있었다.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평가(TIMSS or PISA)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최상위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려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비판적 전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로 대변되는 21세기의 미래 인재, 즉 도구적 지식과 기술,

이질적 집단과의 소통능력, 다문화적 감수성, 자기주도 학습역량, 세계 시민의식, 창의성 개발능력 등을 갖춘 인재를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폭증하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도 어렵고, 첨단 지식도 몇 년이 못가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많은 지식을 전수하기 보다는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실험이 시도되고 있지만 교육계 전체가 창의적 교육시스템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월은 '어린이달'이다. 5월이 되면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는 노래 가사가 절로 생각난다. 그러나 어른들이 5월을 '어린이의 세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지 의문이다. 지구촌의 주역이 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상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발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

는 20세기를 전후해서 거의 다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 개발과 교육보다는 기존의 지식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이유이다.

오늘날, 창의융합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도 창의적 교육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이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틀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듯이 창의융합교육도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체험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프랑스, 색채교육을 통해서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영국, 일상의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창의교육을 실천하는 핀란드 등의 교육방식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창의성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 창의성 개발에 활용된 문화예술교육이 어린이의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떠한 교육방식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어떠한 감성을 자극할 때 어린이의 창의성이 개발되는지를 구체화하기는 쉽지 않다.

창의성에 대한 정의도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향한 개인의 잠재적 능력이다. 다시 말해, 창의성은 개인의 자질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이나 참신한 통찰력을 이끌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창의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창의성이 개인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접점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어린이의 창의성 교육을 위한 유의미한 노력들이 진행될 사례가 있다. 서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예술가교사(TA : Teaching Artist)를 양성하는 교육이 실시된 바 있다. 예술가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창의성 개발을 위한 통합예술교육을 실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극, 시각예술,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결합하여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미적, 창의적 예술체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예술가교사는 설득력 있는 창의융합교육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교사인지 예술가인지, 예술가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을 기반으로 창의성 교육을 위한 실천 활동이 교육현장에서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하며 2015년 5월을 맞이하고 싶다.

社說

시민 불편 불구 하이패스 없는 2순환도로

하이패스 카드는 고속국도 전 구간에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는 전자카드다. 운전자와 톨게이트 직원이 현금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없어 최근엔 고속국도가 아닌 유료도로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곳이 많다.

하지만 몇몇 유료도로는 아직도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민자 유료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도 마찬가지다. 개통 10년이 넘도록 시대에 뒤떨어진 요금 지급 방식으로 오로지 현금 지급만 가능해 시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루 평균 12만 대가 넘는 제2순환도로 이용객들은 출·퇴근 시간 등에 극심한 체증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광주시와 민자사업자 측은 시민 편의는 외면한 채 수년째 하이패스 설치 주체를 놓고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시는 몇 년 전부터 하이패스 설치를 검토해 왔지만 제2순환도로사업자인 맥쿼

리 등이 설치비용 투자를 거부해 진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민간사업자 측에 설치·운영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제2순환도로에 하이패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설치비용 70억 원과 연간 유지보수비를 비롯한 운영비 20억 원 등 모두 9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순환도로 사업자인 맥쿼리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광주시는 자신의 배반 불리려는 사업자 측의 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하이패스 설치 운영비 부담 문제를 재논의해서 더 이상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광주 어린이집 보육료, 급한 불은 끄지만...

광주시가 시교육청이 요청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4월분 예산 60억 원을 24일 긴급 지원했다. 한다. 광주시는 당초 시교육청의 예산 지원 요청에 난색을 표했으나 지난달 처럼 일단 '보육대란'은 피하고 보자며 교육지책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 3·4월 두 달 연속 광주시의 지원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광주지역 누리과정 보조금은 1600여 명에 달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돼 연쇄 파장이 우려됐지만 광주시가 지원에 나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보조금을 올 1~2월 두 달치만 편성해 보육료 지급에 난항이 예상됐었다. 교육청은 지난달 예산이 바닥나자 광주시가 3월분 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광주시는 4월 30일 상황을 조건으로 6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광주 누리과정 예산은 월 60억 원으로 이 가운데 45억 원이 보육료 명목으

로 카드 결제되고 나머지 15억 원은 수당과 후생경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1600여 명에게 계좌 이체된다.

보육료 문제는 5월 중 교육부에서 목적예비비가 나오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보육대란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법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무상급식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공약이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논리의 모순이자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다.

교육복지지를 놓고 나 다르고 나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이제 비생산적인 살바싸움을 멈추고 재원 마련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표현의 자유와 증오 발언



정우중
변호사

2015년 1월 7일 오전 복면을 쓴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두 테러리스트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풍자신문 사틀리에브도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하여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이 사건으로 온 세계는 "Je suis Charlie(나는 샤를리다)"라는 구호를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무력 행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물론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까지 한 목소리로 언론사에 테러를 가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테러리스트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투쟁하겠다(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라는 유명한 볼테르의 말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언론사를 공격했다는 사실은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고, 사람들은 "나는 샤를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광장으로 뛰어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사틀리에브도가 다시 이슬람교의 장시자인 무하마드를 풍자하는 만화를 게재하며 이슬람교도를 자극했고, 이제는 "Je ne suis pas Charlie(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는 구호가 들리기 시작했다. 샤를리가 풍자 만화를 게재하여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문화와 종교를 비하하고 증오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고, 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분명 그 한계는 존재한다. 수학이나 물리학에 풀리지 않는 10대 난제가 있는 것처럼 필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하는 것이 법학의 난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쉽게 그 난제를 풀어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쟁을 보면 국적, 인종, 성, 종교, 성적정체성, 정치적 견해, 장애, 사회적 위치, 외모의 차이를 이유로 상대방을 폄하하는 발언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증오발언(Hate speech)라고 부르면서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증오발언을 범죄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목숨을 희생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게 되었고, SNS라는 새로운 통로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넷이나 SNS를 보면 증오발언이 넘쳐나고 있는 듯하다. 호남을 흉어로 경성도를 과대하게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둠에 빙대어 비하하는 글, 자기의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을 써 놓는 댓글은 명백히 증오발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아직 증오발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표현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자기 생각을 보다 자극적인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누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해 또 다른 증오발언을 불러오고,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성숙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회교과서에 나왔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준다면 그 행동은 방종"이라는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본다.

기고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한 여수



이승욱
여수부시장

'여수'하면 대부분 2012 EXPO. 오동도, 밤바다 등을 떠올리지만 그 밖에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도시가 바로 여수다. 진남관, 향일암, 흥국사 등 훌륭한 문화유적과 거문도, 금오도 비렁길, 꽃섬, 여자만과 가막만, 요트장 등 헤아릴 수 없는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천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여수가 최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여수를 찾는 관광객을 보면, EXPO가 열렸던 2012년은 제외하더라도 2013년 1041만명, 지난해에는 세월호 여파에도 989만명이 찾았다. 실로 엄청난 숫자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시에서는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1300만명으로 잡았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올해 1/4분기 관광객은 겨울 비수기임에도 281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는 해상케이블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최초,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개통된 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부터 여수 명물로 자리 잡았다. 돌산공원에서 오동도 입구 자갈밭 사이 하늘에 해상 케이블카가 떠있고, 그 아래에는 유람선이 떠다닌다.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자 시는 대형 크루즈선 2척을 추가 투입해 운행하고 있다.

엑스포를 계기로 여수는 도로 등 SOC가 잘 구축돼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고, 호텔 등 관광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하늘, 땅, 바다 등 어디에서나 입체적 관광을 즐길 수 있지만 가장 큰 볼거리는 역시 야경이다. 석유화학공장이 즐비한 여수 국가산단에서 내뿜는 야경은 가히 장관이다. 여기에 여수밤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수변을 따라 조성된 야간경관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여수는 지금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보기 위해 수많은 연인과 젊은이들이 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층이 주객인 'KTX 내일로 티켓'도 부산을 제외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여수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인데, 싱싱한 해산물과 맛있는 계절 별미가 넘치는 남도음식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주말이면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수백대에 달할 정도다. 승용차도 헤아릴 수가 없이 밀려들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교통체증을 평일에는 경찰과 주차 안내요원들이 해결하고 있다. 주말에는 시청 공무원 150여명이 현장 비상근무로 주차장 안내 및 관광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특급호텔 5개를 비롯해 관광호텔이 18곳이나 운영중이지만 방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호텔이나 민박 등 숙박시설도 동고이고 있다. 주요 관광지 주변 식당은 2주전 예약이 거의 끝나는 실정이다. 이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급 효자산업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엑스포 성공개최도시 여수의 저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여수를 찾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요즘 관광객들은 많은 곳을 여행하기 에 타 지역과 비교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또한, 방송과 언론, SNS 등이 잘 발달돼 부정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널리 퍼져 나간다. 시민이 하나둘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여수를 찾는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해야 한다. 교통이 정체되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관광객에게 양보하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에서도 정결은 기본이고, 바가지 상흔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여수의 가치와 지역관광의 파급 효과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엑스포 개최도시 시민의 긍지와 노후우를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할때다. 여수가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를 우리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無等鼓

조선시대 공무원들은 매일 묘시(오전 5~7시)에 출근해 유시(오후 5~7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과였다.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 정도니 주5일제에 '법정 근무시간'을 따지는 요즘이러면 노동조합의 반발이 적지 않았을 터다. 물론, 당시에도 법정 공휴일이 있었다. 매월 1일과 8일, 15일, 23일이 정기 휴일이었다. 이 날은 모든 관공서가 무조건 쉬었다. 여기에 입춘, 경칩을 비롯한 24절 기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 4일간의 정기휴일, 그리고 한 달 평균 2차례의 절기를 감안하면 조선시대 공무원들은 매월 6일의 법정 공휴일을 즐겼던 셈이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숨어있는데 바로 4일간의 정기휴일과 절기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대체휴일제도가 없었으니, 운수 나쁘게 정기휴일과 절기가 겹치기도 하면 휴일 하루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매년 초마다 서운관(書雲觀) 관리들이 바빠지곤 했다. 서운관은 천문과 역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매년 그 해의 절기를 계산해 공표하는 일도 맡고 있었다. 당시엔 음력 달력을 쓰기 때문에 일

일이 절기를 계산해야 하는 만큼, 서운관 관리들은 매년 연초만 되면 동료 관리와 상관들에게 '올해 연휴가 며칠이 나 되는지, 그리고 1, 8, 15, 23일 중 며칠이나 절기와 겹치는지'를 빨리 계산해 알려달라는 압력을 시달렸다.

물론, 연휴를 늘린대거나 대체휴일을 지정한다거나 하는 노력이나 시도는 없었지만, 연휴 계산을 빨리 마쳐 '올해는 며칠을 늘 수 있는지'를 재빨리 계산하는 것이 어느 틈엔가 서운관의 주요 임무가 되어 버린 것이다.

다음달인 5월 달력에는 5일간의 일요일, 그리고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을 합쳐 총 7일간의 법정공휴일이 빨간 색으로 표시돼 있다. 구정이 들어있는 2월, 추석이가 끼어있는 9월과 함께 법정공휴일이 가장 많은 달이다. 법정공휴일이 가장 적은 '찬인한 4월'을 보낸 직장인들의 기쁨을 한껏 부풀게 하는 달이기도 하다.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때마다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애먼 눈총을 받아 온 회사 총무부 직원들도 행복 한 5월이 될 것 같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